

미일 무역협정 서명에 따른 현지 반응



Global
Market
Report

CONTENTS

목 차

요 약

I. 미일 무역협정 배경 및 경과 / 1

- 1 | 1. 미일 무역협정 배경
- 2 | 2. 협상 경과

II. 미일 무역협정 합의 세부내용 / 3

III. 현지 반응 / 8

- 8 | 1. 미국 측 반응
- 9 | 2. 일본 측 반응

IV. 향후 일정 / 12

요 약

□ UN 총회 기간 중(9.25), 일부 품목 개방 및 디지털 통상 관련 내용에 서명

- (개시 배경)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한 일본 시장에서의 접근성 약화 및 對日 적자 해결, 비관세 장벽 완화 목적으로 美측에서 양자 협상 先 제안
 - (美) 일본은 4위 교역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, 농산물, 자동차, 서비스 분야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원활한 교역에 어려움 존재 주장
 - (日) 향후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 면제를 목표로 협상 수락
- (경과) 협상 개시('18년 9월) 이후, 6차례 공식 협상 既 진행, G7 정상회의에서 미일 무역협정 원칙적 합의 도출(8.25), UN 총회 기간 중 서명(9.25)
 - 금번 서명은 1) 일부 품목에 대한 개방(농축산물, 공산품), 2) 디지털 통상 관련 합의로, 그 외 관세, 비관세 관련 협상은 지속할 예정

□ 주요 합의 내용 : 농축산물, 공산품, 디지털 통상 관련 3개 분야

- (농산물) 일본은 72억불 규모의 美농산물에 관세 철폐 및 인하, 미국은 42개, 4천만불 규모의 日농산물에 관세 철폐 및 인하
 - (日측 양허) 아몬드, 블루베리, 옥수수 등 13억불 즉시 철폐, 쇠고기, 돼지고기 등 29억불 관세 인하, 와인, 치즈, 체리 등 30억불 단계적 관세 철폐
 - (美측 양허) 다년생 식물, 화훼 꽃, 녹차, 견, 간장, 과자 제품 등 관세 철폐 또는 인하. 일본산 와규 쇠고기 3,000톤 무관세 쿼터 신설
- (공산품) 미국은 일본산 기계공구, 증기터빈, 자전거, 악기 등 관세 철폐 혹은 인하 양허
- (디지털 통상) 디지털 제품 관세 부과 금지,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보장, 데이터 현지화 금지, 소스 코드 및 알고리즘 임의적 접근 금지 등
- (기타) 日측의 핵심 요구사항 이었던 자동차 232조 관세 면제 관련 내용은 합의 내용에 불포함

□ 미국 내 현지 반응

- (정부) 현재의 합의 내용은 초기 단계이며, 향후 개방 분야 확대 위한 추가 협상 진행할 예정
- (의회) 일본 농산물 시장 접근성 약 90% 회복할 것. 단, TPP 보다 나은 점 없어 애초 TPP 탈퇴 이유 의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 제기
- (업계) 日농축산 시장 접근성 보장된다며 농축산업계 환영 입장 표명. IT업계는 디지털 통상에 대한 선례 확립한 중요한 협정으로 의미 부여

요 약

□ 일본 내 현지 반응

- (정부) 美측 요구사항 높아지기 전에 불확실성 리스크 제거
- (의회) 자동차 관세 면제는 확보하지 못한 채 일본 농산물 시장만 개방한 일방적인 협상 결과라며 비난의 목소리
- (언론) 현실을 감안한 최대한의 방어 vs 자동차 관세 면제 확보 못해 실패
- (업계) 자동차는 관세 부과 우려 유지, 농산물은 TPP 수준으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, 축산업은 對美 수출 증가 기대와 동시에 우려 의견

□ 향후 일정

- 10월 중 일본 국회 승인 절차 완료되면 연내 발효 가능. 추후 협정 분야 확대 위한 추가 협상은 '20년 4월말~5월초로 예상. [7]

I. 미일 무역협정 배경 및 경과

1 미일 무역협정 배경

- 미국의 TPP 탈퇴('17년 1월)로 인한 일본 시장에서의 접근성 약화 및 對日 적자 해결과 비관세장벽 완화 목적으로 美측에서 양자 협상 先 제안
 - 트럼프, 메가 FTA인 TPP 대비 국가별 양자 협상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며 TPP 탈퇴 이후 여러 양자 협상*들을 既 진행
 - * 미-EU 무역협상, 한미 FTA 개정협정, USMCA 등
 - 일본은 과거 미국의 제3위 농산물 수출국이었으나, CPTPP('18년 12월), 일-EU EPA('19년 2월)가 발효되며 미국산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짐
- 이후 미국은 자동차 232조를 조사 개시('18.5.23) 하며 EU 및 일본 등 모든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20~25%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
 - 이에 일본은 협상 중에는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 금지를 전제로 양자 협상에 합의하게 됨
- 양 국의 상이한 목적 하에 미일 무역협상 공식 개시('18년 9월)
 - (美) 일본은 4위 규모의 교역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, 농산품, 자동차, 서비스 분야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원활한 교역에 어려움 존재
 - 對日적자가 688억불에 육박('17년말), 균형 있는 교역 위해 협상 개시 (USTR의 협상목표 내용)
 - * 미국의 對日 적자 : ('16년) 689억불→('17년) 688억불→('18년) 676억불
 - (日) 향후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 면제를 목표로 협상
 - * 농수산품에 대해서는 과거 TPP에서 美측에 개방한 수준으로 국한하겠다는 전제
- 양국은 '18년 12월까지 국내 절차 완료 후, 협상을 진행코자 하였으나 미중 통상분쟁으로 진행이 다소 지연되며 '19년 4월 1차 협상 시작

2 협상 경과

- 협상 개시('18년 9월) 이후, 총 6차례 공식 협상 既 진행하였으며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미일 무역협정 원칙적 합의 도출, UN 총회 기간 중 서명
 - (경과) 협상개시('18.9.26)→의회 통보('18.10.16)→공청회 등 의견 접수→1차 협상('19.4.15-16)→2차 협상('19.4.25)→3차 협상('19.5.25)→4차 협상('19.6.13)→5차 협상('19.6.28)→6차 협상('19.8.1-2)→원칙적 합의 발표('19.8.25)→제74차 UN 총회 기간 중 합의 서명('19.9.25)
- 공식 협상 중 주요내용
 - ① 1차 장관급 협상('19.4.15-16, 워싱턴) : 협상 범위 결정과 농산품 및 자동차를 포함한 상품 무역에 대한 논의 시작
 - ② 2차 장관급 협상('19.4.25, 워싱턴) : 미국은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주장 vs 일본은 자동차 산업의 對美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 기여 주장
 - * 이때 미국은 환율조항을 제기하였으나 일본은 통상 이슈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무장관급 회담이 별도로 개최
 - ③ 3차 장관급 협상('19.5.25, 도쿄) : 미국은 농산품 조기 개방 vs 일본은 미국 자동차 시장을 과거 TPP 합의 수준으로 개방할 것 요구
 - * 미일 정상회담(5월 27일)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중대 발표를 예고하였으나 아베 총리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
 - ④ 4차 장관급 협상(6월 13일, 워싱턴) : 처음으로 실무급 협의를 거쳐 장관급 회담을 개최. 일본 참의원 선거 후 조기 성과도출에 합의
 - ⑤ 5차 장관급 협상(6월 28일, 오사카) : 트럼프 대통령이 對日무역적자에 대한 불만 표시, 빠른 협의진행 요구
 - ⑥ 6차 장관급 협상(8월 1일~2일, 워싱턴) : 양국에 이익이 되는 성과를 9월 중에 모두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

II. 미일 무역협정 합의 세부내용

□ 금번 서명은 1) 일부 품목에 대한 개방(농축산물, 공산품), 2) 디지털 통상 관련 합의로, 그 외 관세, 비관세 관련 협상은 지속할 예정

* USTR 미일 무역협정 합의문 내용. 현지 언론에선 약식 타결(mini deal)이라 표현

① (농축산물) 일본은 72억불 규모의 美농산물에 관세 철폐 및 인하, 미국은 42개, 4천만불 규모의 日농산물에 관세 철폐 및 인하

① 일본 측 양허 및 관련 내용

○ (전체) 90% 이상의 미국산 농산물 관세 철폐 및 인하 효과, 과거 TPP 수준의 양허를 미국 측에 제공

○ (즉시 철폐) 아몬드, 블루베리, 크랜베리, 호두, 스위트콘, 곡물 수수, 식품 보충제, 브로콜리, 자두 등 총 13억불 규모의 농축산물 관세 즉시 철폐

○ (관세 인하) 쇠고기, 돼지고기 등 총 29억불 규모 품목에 관세 인하

* 단계별 관세 인하 후, 잔여 관세가 있는 품목을 의미함

- (소고기) 미국산 소고기에 부과하는 38.5%의 관세→2033년 9%까지 인하

- (돼지고기) 소세지 등에 사용되는 저가품의 돼지고기 관세 kg당 482엔 → 50엔으로 인하, 고가품은 4.3%→0%까지 관세 철폐

* 미국산 소고기, 돼지고기에 대한 日측의 양허는 과거 TPP 수준

○ (단계적 관세 인하 후 철폐) 와인, 치즈와 유청, 에탄올, 냉동 가금류, 가공 돼지고기, 신선 체리, 냉동 감자, 오렌지, 달걀, 토마토 페이스트 등 총 30억불 규모 품목에 단계적 관세 인하 후 철폐

○ (쿼터제 신설) 밀, 밀 제품, 맥아, 포도당, 과당, 옥수수 전분, 감자 전분, 이눌린 등에 일정 수입량까지 무관세 쿼터 신설

- (마크업 감소) '18년말 기준, 8억불 규모로 미국에서 수입되었던 밀과 보리에 대한 일본의 마크업 45% 감소
 - * 마크업(markup) :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매입 시 부과하는 가격. 실질적인 관세 역할
- (세이프가드) 미국산 소고기, 돼지고기, 밀, 오렌지, 경주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제한적으로 사용, 시간 경과 후 폐지할 예정
- (버터 및 유제품) 미국 측이 요구했던 미국산 버터, 특정 유제품 33개 품목에 대한 수입할당 신설은 일본 농업계를 고려하여 보류

② 미국 측 양허 및 관련 내용

- (관세 철폐 및 인하) 다년생 식물, 화훼 꽃, 감, 녹차, 껌, 간장, 과자 제품 등 42개, 4천만불 규모의 日농산물에 관세 철폐 및 인하
- (쿼터제 신설) 일본산 와규 소고기 3,000톤까지 무관세 쿼터 신설

< 일본 측의 농축산물 양허 내용 >

품목	합의 내용
쌀	· 협상에서 제외. 미국에 대한 새로운 할당은 마련하지 아니한다.
밀	· TPP와 같은 내용으로 마크업을 45% 삭감(현행 할당 외 세율(55엔/kg) 유지) · TPP와 같은 내용의 미국 할당(2019년 12만 톤 → 2024년 15만 톤, 주요 3개 품목 45%, 기타 품목 50%의 마크업 삭감)
보리	· TPP와 같은 내용으로 마크업을 45% 삭감(현행 할당 외 세율(39엔/kg) 유지) · 새로운 미국 할당은 두지 않음
소고기	· TPP와 같은 내용으로 9%까지 관세 삭감, 세이프가드로 장기의 관세 삭감 기간을 확보 ·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수량은 2020년도 24.2만 톤. 이후 TPP 발동 기준과 마찬가지로 증가하여 2033년도 29.3만 톤 · 2023년도 이후 CPTPP 협정이 수정되어 있다면, 미국과 CPTPP 발효국에서의 수입을 포함하는 TPP 전체 발동 기준으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협의
돼지고기	· TPP와 같은 내용으로 종가세 부분에 대한 관세를 철폐, 해당 관세를 50엔/kg까지 삭감. 차액관세제도와 분기점 가격(524엔/kg)을 유지하고 세이프가드 조건으로 장기간의 관세 삭감 기간을 확보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량세 부분의 세이프가드는 미국과 CPTPP 발효국에서의 수입을 포함하는 TPP 전체의 발동기준수량으로 하여 2022년도 9.0만 톤, 이후 TPP 발동기준수량과 마찬가지로 증가하여 2027년도 15.0만 톤
탈지분유·버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국에 대한 새로운 할당은 마련하지 아니한다.
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TPP와 같은 내용으로, 탈지분유와 경합할 가능성이 높은 유청(단백질 함량 25-45%, 25% 미만)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건 아래 장기간의 관세 삭감 기간을 확보한 후 관세를 철폐
치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TPP와 같은 내용 · 슈레드치즈 원료용 후레쉬치즈에 대해 새로운 미국 할당분은 마련하지 아니한다.
원에 관련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과(생과), 오렌지(생과), 토마토 페이스트, 토마토 주스는 TPP와 같은 내용 · 오렌지(생과)의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수량은 TPP의 95% 수준(2019년도 35,150톤 → 2024년도 44,650톤)으로 설정 · 토마토케첩, 포도, 오렌지·사과 과즙(일부 제외)은 제외
설탕·가당 조제품, 전분, 콩, 곤약, 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설탕, 이성화당 설탕, 이성화당, 전분, 팥, 강낭콩은 TPP와 같은 내용. · 조당, 정제 설탕, 곤약, 땅콩의 일부, 차의 일부, 코코아 조제품 등 초콜릿 과자는 양허하지 않음. (미국 할당분은 마련하지 아니한다.)
계란, 닭고기, 경주마, 천연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닭고기(냉동), 닭고기 조제품(소·돼지고기를 포함하지 않는 것), 전란, 달걀노른자, 흰자, 천연꿀, 경주마는 TPP와 같은 내용 · 닭고기(신선, 냉장), 닭고기 조제품(소·돼지고기를 포함하는 것), 껍질 계란은 제외
밀 가공 조제품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맥아(미국 할당),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밀가루 조제품, 스파게티, 마카로니, 비스킷, 쿠키, 크래커 등은 TPP와 같은 내용 · 밀가루, 기타 밀가루 조제품은 제외
쇠고기·돼지고기 가공 조제품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내장, 소의 혀, 돼지고기 조제품(햄·베이컨, 소시지 등)은 TPP와 같은 내용 · 살아있는 소, 돼지(자돈, 성돈의 종량세 부분), 쇠고기 30% 미만의 조제품, ‘염장, 건조, 훈제 쇠고기 및 쇠고기 분말’은 제외
유제품의 가공 조제품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냉동 요구르트, 유당, 카세인, 알부민유 등은 TPP와 같은 내용 · 특정 용도·종류의 유청은 TPP와 같은 수량의 미국 할당분 설정 · PEF(조제식용지), 아이스크림·빙과, 전분유, 버터밀크분말, 가당연유, 무가당연유, 무가당 코코아 조제품 등은 제외(미국 할당분은 마련하지 아니한다).
임산물(목재)·수산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양허하고 있지 아니하다.

자료원 : 일본 경제산업성

② (공산품) 미국은 일본산 기계공구, 증기터빈, 자전거, 악기 등 관세 철폐 혹은 인하. 반면 일본 측은 공산품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

- 일본기업의 수출 관심이 높고 무역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

< 미국 측의 공산품 양허 내용 >

품목 양허 선정 배경	양허 단계
고성능 공작기계 및 부품	· 공구(현행세율 2.9~5.7%) : 즉시 철폐, 2년, 즉시 50% 인하 · 선반(현행 4.2~4.4%) : 2년 · 단조기(현행 4.4%) : 2년
일본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	· 고무·플라스틱가공기계 (현행 3.1%) : 2년 · 철제 나사, 볼트(현행 2.8~8.6%) : 즉시 철폐, 2년, 즉시 50% 인하, 2년에 걸쳐 50% 인하
기계 관련 기자재	· 에어컨 부품(현행세율 1.4%) : 즉시 철폐 · 철도 부품(현행 2.6~3.1%) : 즉시 철폐, 2년
미국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	· 탄소 섬유 제조용 조정제(현행 6~6.5%) : 즉시 50% 인하, 2년에 걸쳐 50% 인하 · 증기터빈(현행 5~6.7%) : 2년, 2년에 걸쳐 50% 인하
첨단기술 품목	· 3D프린터를 포함한 레이저 성형기(현행세율 3.5%) : 2년
향후 시장규모가 확대 성장 기대 품목	· 연료 전지(현행 2%) : 즉시 철폐
소비재	· 악기(현행세율 2.6~5.4%) : 즉시 철폐, 2년, 즉시 50% 인하 · 안경·선그라스(현행 2~2.5%) : 즉시 철폐
미국 소비자 니즈가 높은 품목	· 자전거·부품(현행 3~11%) : 즉시 철폐, 즉시 50% 인하, 2년에 걸쳐 50% 인하

자료원 : 일본 경제산업성

③ (디지털 통상) 디지털 통상은 USMCA에서 규정한 높고 포괄적인 수준의 협정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범위를 확대할 예정

- 비디오, 음악, e-북, 소프트웨어, 게임과 같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관세 부과 금지
- 세금 조치를 포함하여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보장함

- 모든 산업·부문에서 국경 간 데이터 전송(이전) 보장
 - * 데이터 전송(이전)(data transfer) : 데이터의 국가와 국가 간 이동이나, 그 중에서도 재화로써의 데이터(및 개인정보)가 국경 간 이동하는 것
 -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하여 데이터 현지화 조항 금지
 - * 데이터 현지화(data localization): 데이터 서버 또는 특정 종류의 데이터를 반드시 국가 내에 위치(데이터 현지 보관)하도록 제한하는 조치
 - 컴퓨터 소스 코드 및 알고리즘 임의적 접근 금지 등
 - 혁신적인 암호화 기술을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업의 유연성 보장
- ④ (자동차) 日측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자동차 232조 관세 면제 관련 내용은 합의 내용에 불포함
- * 아베, 트럼프에게 일본산 자동차, 부품에 관세 면제 확답 받았다고 주장 중
- 미국은 또한 미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

III. 현지 반응

1 미국 측 반응

- (정부) 금번 미일 무역협정 서명으로 약 70억불 상당의 일본의 새로운 농축산물 시장이 열렸다고 환영을 표명
 - 동 협정은 초기 단계(initial stage)이며 협정에 포함되는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협상(next stage)을 위해 노력할 것
- (USTR) 미일 무역협정 서명은 美 축산업, 유제품, 와인 등과 관련한 업계에 일본 시장을 개방해 줄 것
 - 단, 자동차는 협정문에 미포함 되었다고 언급(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)
- (의회) 미일 무역협정 서명으로 TPP 탈퇴로 제한받았던 일본 농산품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90% 정도 회복할 것
 - 단, TPP 보다 나은 점 없어 애초 TPP 탈퇴 이유가 의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존재
- (언론) 일본은 동 협정의 핵심 목표였던 자동차 232조 관세 조치 면제를 보장받지 못하여 의회의 동의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할 것
 - (FT) 자동차는 무역협정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자동차 조항 배제된 미일 무역협정은 일본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상황
 - * TPP 대비 나아진 것 없어, 아베 총리는 의회의 동의 얻기 어려울 것
 - 일본 경제 성장에 주는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, 일본 축산시장의 개방 확대는 자국산의 경쟁력만 빼앗길 우려 존재한다는 평가
 - (Inside US Trade) 미국 측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232조 면제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일본 시장 개방 확대를 제안했던 것으로 보임

- **(농축산업계)** 미중 통상분쟁으로 수출이 위축된 시점에서 미일 무역협정 서명은 TPP 회원국과 같은 수준으로 일본 시장 접근성을 보장하여 환영의 입장 표명
 - * National Association of Wheat Growers, 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
- 미중 통상분쟁으로 美 농축산업계의 피해로 인한 정치적 압박이 미일 무역협정 서명에 동기가 되었다는 평가
 - *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 지지층인 팜벨트의 불만을 완화시키려는 카드로 활용
- **(IT업계)** 디지털 통상에 대한 선례 확립한 중요한 협정으로 의미 부여
 - *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
- **(IBM)** 금번 디지털 조항으로 새로운 국제 기준이 정립되었으며, 향후 데이터와 기술혁신의 동력이 양국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 할 것
- **(전미인터넷협회)** 환영의 입장이나, 혁신 기반의 지재산, 서비스, 조달 시장에서도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음

2 일본 측 반응

- **(정부)** 미일 무역협상 장기화로 美측의 요구사항이 높아지기 전에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안도의 목소리
- **(관방장관)** 미일 동맹 유대를 재확인하고 통상 이슈 등 양국 관계 및 다양한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유익했다는 입장
 - 美측 요구사항이 보다 더 관철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의 입장 보이며, 자동차 232조 추가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 언급
- **(농림수산상)** 미국산 옥수수 구매 약속은 일본의 해충 피해에 대한 긴급 대책 차원임

- 日정부 내에서는 내년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치적 위해 일본에 대해 요구사항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 왔다는 의견
- (의회) 자동차 관세는 피하지 못하고 예상 밖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에 대해 비난 의견 존재
 - (입헌민주당) 어떤 품목에서 양보하고 생산자, 소비자에 영향이 있는지 깊게 봐야함. 예산위원회 집중심의회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할 것
 - (국민민주당) 일본 농산물 시장은 개방, 자동차 관세 철폐는 확보하지 못해 일본 측이 많은 부분을 양보하였다는 의견
 - (공산당)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, 국회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
- (언론) 최대한의 방어를 지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자동차 232조 관세 조치 면제 확보 실패에 대한 비난 의견 혼조
 - (닛케이) 최종 합의에 대한 전문가 및 각 단체의 긍정적인 의견 보도
 - 각 전문가들은 본 협정 서명에 대해 60점 이상으로 평가

분야	전문가	의견
공업품	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스가하라 준이치(菅原 淳一)	점수 : 60점 중요 품목에 대해 연기. 무승부로 끝난 것이 급제점 일본차의 추가 관세회피에 평가 점수 부여 가능 소고기 등 방어를 잃은 일본, 제 2단계의 교섭은 난항
	딜로이트토마츠그룹 파트너 하뉴다 케이스케(羽生田 慶介)	점수 : 70점 1년이라는 단기간에 합의해 기업 공급망에 불안을 불식 자동차 추가관세를 회피했다는 점이 큼 미국이 TPP에 돌아올 가능성은 내려가 TPP 가치를 잃어 버리게 된 면이 있음
농업	미야기대학 명예교수 오오이즈미 카즈네키(大泉一貫)	점수 : 80점 와규 수출 증가를 위해 미국의 쿼터 할당 확대 평가 농산품의 자유화 전체적으로는 TPP 범위 내 쌀이 협상 제외 품목 되었다는 점은 국내 농가에는 호재
	일본종합연구소 전문위원 미와 야스후미(三輪 泰史)	점수 : 75점 일미 모두 공업품, 농산품에서 중요한 교섭은 회피한 인상 TPP 각국과 이 후 교섭할 소고기 세이프가드 수정에 우려 농업현장에 큰 타격은 회피. 그러나 자유화 영향은 조금씩 나올 것

- (요미우리) 현실을 감안한 차선책이라 평가, 자동차 관세 철폐를 위해 지속적인 협상 기조 필요
- (마이니치, 아사히) 정부 주장처럼 Win-Win이라 말하긴 어려운 협상 결과
 - 자동차는 '18년 9월 공동성명과 다를 바 없어 추가 관세 발동 위험 여전히 존재

□ (업계) 정부의 협상 결과 발표 후, 호의적인 평가 다수

- (외식업) 맥도날드, 스키야 등 외식업계는 최근 인력 부족,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번 협정은 비용 절감 기회가 될 것
- (축산업) 對美 수출 증가 기대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
- (자동차)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. 토요타 회장은 '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은 일'이라 언급. 다만 관세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님
- (농산물) 농산물 개방이 TPP 수준이라는 점, 쌀 쿼터를 신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좋게 평가하고 있음

업계 대표	의견
경단련 나카니시 회장	단기간에 미일 무역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했다고 평가
경제동우회 사쿠리다 대표간사	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의 틀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
일본상공회의소 미무라 회장	계속 협의기로 된 사항에 대해 신속한 합의 기대
일본자동차공업회 도요타 회장	자동차 분야에 있어 일미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이 유지, 강화될 것
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카야 회장	(미국산 쌀의 무관세 수입할당 설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) 생산 현장은 안심할 수 있을 것
JA홋카이도중앙회 히다 회장	(쌀 등 무관세 보류에 대해) 홋카이도 생산현장에 배려가 있었다고 받아들임. 한편 소고기 등은 지금까지 이상의 불안도 내포하고 있음

IV. 향후 일정

- 일본은 10월 중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
 - 일본은 농산물 관세 인하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의 승인 필요
 - 10월 중 임시국회 소집 후 승인 절차 마무리 되면 연내 발효 가능
 - 여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어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, 협정 발효 후 4개월 뒤에는 포괄적 추가 협정에 대한 협상 개시도 가능
- 미국은 '20년 1월 1일부 발효를 전망하고 있음
 - 라이트하이저, 일본 국회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 발효할 것
 - 협정 분야 확대를 위한 추가 무역 협상은 내년 4월 말에서 5월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. /끝/

작 성 자

- 워싱턴무역관 이 현 경
- 도쿄무역관 강 민 정
- 통상지원팀 김 미 옥

Global Market Report 19-094

미일 무역협정 서명에 따른 현지 반응

- 발 행 인 | 권평오
- 발 행 처 | KOTRA
- 발 행 일 | 2019년 9월
- 주 소 |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
(06792)
- 전 화 | 02-1600-7119(대표)
- 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- 문 의 처 | 통상지원팀
(02-3460-3388)
- I S B N | 979-11-6490-033-6 (95320)



Global Market Report

kotra
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